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엄마들의 거짓말?

- <10위> “엄만 네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거짓말 하지 마!”
- < 9위> “너 이번에 일등하면 000 사 줄게!”
- < 8위> “너 거짓말하면 엉덩이에 털 난다!”
- < 7위> (아이가) “엄마 저거 사 줘” .. (엄마가) “알았어. 내일 사 줄게”
- < 6위> “너 거짓말하면 경찰 아저씨가 데려간다!”
- < 5위> “밤 늦게 돌아다니면 호랑이가 물어간다!”
- < 4위> “니가 세상에서 제일 이빠!”
- < 3위> “넌 다리밑에서 주워 왔어!”
- < 2위> 이쁜짓하면 “아이구~내 새끼..”
미운짓하면 “아이구~애비를 빼다 박았구나..”

<대망의 1위는 >

맛있는 것 있으면
“너 많이 먹어. 엄만 아까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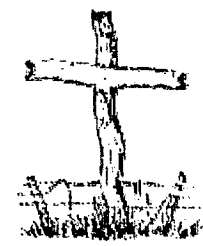
우리들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시던 어머니...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사랑만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땐 그랬지▶ 영화 “저 하늘에도 슬픔이”
집나간 엄마를 대신해 꾀팔이와 동남으로 동생들과 병든 아버지를 봉양하던 초등학교 ‘이윤복’ 어린이의 실제 생활을 영화화 한 ‘저 하늘에도 슬픔이’. 국수를 사 갖고 가던 중 동네불량배에게 얻어 맞다가 땅에 흘려진 국수를 줍던 장면은 단체관람하던 또래의 여자아이들도 울지 않을 수 없던 장면이었습니다.
모두가 힘들게 살던 시절이었지만 가슴속에 눈물만큼은 메마르지 않았던 시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던 그 시절 그 영화를 그때 그 마음으로 보고 싶습니다.

| | | |
|--|--|--|
|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 '2004년 교회생활: "바보 같은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
| 제6권 28호 |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 2004년 7월 11일 |
| ☎525-3858/369-5077.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 | |

모르고 지나가는 은혜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산 속에서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낮 동안 뜨거운 땀별을 걸어온 나그네는 너무 힘이 들어 더이상 걸을 수가 없어 걸음을 멈추고 풀 숲 아늑한 곳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나그네는 놀자마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호랑이 한마리가 어슬렁 거리고가다가 나그네를 발견하고는 나그네에게 덤벼려 하였습니다. 그 때 길가가 환해지면서 산 도적떼 한 패가 횃불을 들고 길을 지나게되었습니다. 환한 불빛을 본 호랑이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쳤고, 호랑이의 포효에 놀란 산도적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산도적들 중의 하나가 도망을 치면서 호랑이를향해 돌을 던졌는데, 마침 지나가던 토끼가 한 마리가 돌에 맞아 기절하여 나그네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바탕의 소동이 지나간 후에 갑자기 숲 속에서 바람 스치는 싹~아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숲에 사는 구렁이가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구렁이는 지금 요기를 하러 나온 참이었는데, 나그네를 발견한 것입니다. 나그네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구렁이는 그 옆에 큰 토끼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토끼를 잡아먹고 만족하여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곤하게 잠을 잔 나그네는 간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 것도 모른채, 아침 새소리에 잠이 깨어 기지개를 켜 후, 갈길을 부지런히 재촉하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데도 우리가 체험하고 확인한 은혜만 은혜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시121:5-6)

◀남편 십계명▶ 눈 치
가정의 경제권을 아내에게 일임하여
아내가 보람을 갖게 하는 것

◀아내 십계명▶ 눈 치
남편에게 따질일 있을때
남편의 기분 상태를 살펴 보는 것

주 일 예 배

<예배좌석>

*Screen이 보이는 곳이면, 스피커가 들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구역식구끼리, 선교회원끼리, 아이 친구의 부모끼리 앉아서 혹은 벽에 등을 기대고.....그저 편하게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자유스러움이 좋은날, 한 군데로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서 드리는 분은 건강함이, 앉아서 드리는 분은 편안함이 어울려 좋습니다. 굳기 빠진 교회라구요? 굳더더기가 빠진 교회입니다.

*5분 Worship Concert

찬양

청년부
학생부

*찬양

다 같이

1.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X2)
2.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찬양 합시다(X2)
3.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X2)
4.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X2)

1.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2.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3.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 * 기도
- * 성경봉독
- * 말씀
- * 헌금기도
- * 교회소식
- * 축도

히브리서 10:24-25
사랑이 있는 믿음

박일영 안수집사

<운동회 일정소개>
<식사>

이재영 안수집사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본다
-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

-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학생부:주일 낮 12시 | 청년부:토 저녁 7시

1. 오늘은 한 겨울의 “전교우 운동회”
 - *마음은 저 젊은이들과 별 다를바 없는데 몸이 마음대로 안되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만국기 펄럭이고 바구니를 터뜨리면 점심시간이 되면 ‘가을운동회’의 기억으로 그 놀란 가슴을 추억으로 바꾸어 놓아 보겠습니다.
2. 다음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5주년 기념.
 - *조출하게 떡만 나눌 자축의 자리지만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마음은 하늘까지 닿아 있습니다.
3.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일시> 13일(화) 오후 1시. 교회
 - *여성교우들만이 모여 여러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머니들의 기도, 무엇보다 큰 응답의 힘이 있습니다.
4. 다음주일은 “은 십자가 성가대”. 제 3남선교회
5. “부모님 앞에서 감사의 Concert”
 - <일시> 17일(토) 오후 5:00- 10:00 <장소> Pump House
 - *내 아이가 언제 저렇게 컸는지 대견스럽고 잘 자라준 아이가 고맙기만 하지요. 조금씩 배워 온 재능들을 무대 아래에서 지켜 보면서 이번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 자라게 해 주셔서. <무대 리허설> Sat 오후5시
6. 아동부 “1일 겨울성경학교” <일시> 13일(화) 10:30am- 4:00pm <장소> 교회
7. 남선교회 낚시친교모임 <일시> 15일(목) 11시 <장소>
 - *겨울바다를 향해 던져보는 ‘내 마음의 추’, 낚시 드리운 바다와 내가 하나되어 봅니다. 낚여진 고기는 덤으로 얻는 기쁨.....
8. “장로교협의회 청년연합집회” <일시> 13일(화)-15일(목) 7:30pm. 오uckland한인교회

◀착한 시인들▶ 시골버스 - 조항미 -

아직도 어느 외진 산골에선
사람이 내리고 싶은 자리가 곧 정류장이다.
기사 양반 소피나 좀 보고 가세
더러는 장바구니를 두고 내린 할머니가
손주놈 같은 기사의 눈치를 살피며
억새숲으로 들어갔다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싱글 병글 쇼 김혜영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옆구리를 슬쩍슬쩍 간질러대는 시골 버스
멈춘 자리가 곧 휴게소다
그러니, 한나절 내내 기다리던 버스가
그냥 지나쳐 간다 하더라도
먼지 풀풀 날리며 투덜투덜 한참을 지나쳤다
다시 후진해 온다 하더라도
정류소 핏말도 없이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팔을 들어 올린 나여, 너무 불평하진 말자
가지를 번쩍 들어올린 포플러 나무와 내가
어쩌면 버스 기사의 노곤한 눈에는 잠시나마
한 풍경으로 흔들리고 있었을 것이니

팔등신 미인처럼 시원스럽게 양
편에 서 있던 시골의 포플러 나
뭇길. 그 사이로 먼지 날리며 오
는 버스를 어떻게 알았는지 뒤돌
아 보지도 않고서도 적당한 거리
에서 길 한쪽으로 비켜서던 시골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먼지 휘날리며 지나간
버스를 야속타 앓고 머리에 감아
쓴 수건 끝자락으로 입을 막으며
눈만 작게 뜬 채 또 걸기 시작했
습니다.

그런 곳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요?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마음
만은 시골버스에 앉아 차창밖을
내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